

청소년 독서에 관한 단상

청소년 독서능력 날로 떨어져 좋은 책에 대한 취향 길러야
'논술시험과 독서의 상관성 모호'

글_이남호 교수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조선시대 아이들은 무엇을 읽고 자랐을까? 천자문과 동몽선습과 명심보감 그리고 소학 등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독서는 소리 내어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었다. 우리말로 된 아이들을 위한 읽을거리는 1920년대가 되어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 어린이 책의 출판은 계속 성장하여, 현재 우리 출판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면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읽을 만한 책도 별로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입시와 컴퓨터에 매달리고 책을 읽지 않는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높다. 여러 독서유관단체에서는 청소년 권장 도서를 계속 지정하고,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바이지만, 학생들의 독서능력 또는 리터러시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다. 대입 신입생들 가운데서 '책다운 책을 한권이라도 제대로 읽어 본 학생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논술시험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논술시험과 청소년 독서와의 상관성은 모호해 보인다.

요즘 나오는 청소년 관련 도서들을 일별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논술능력 향상을 위한 엔솔로지들이 많이 출간된다. 문학작품이나 에세이들을 묶은 것도 있고, 고전적인 저서들을 요약, 발췌, 해설한 것들도 있다. 이런 책들은 입시공부를 위한 것이지, 순수 독서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논술시험에 전략적 도움은 조금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논술능력의 향상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논술교재들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청소년들에게

너무 어렵고 먼 이야기를 너무 단순논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독서능력향상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지식을 주는 책들이 많다. 주식투자, 세계의 오지, 생활과 과학, 현대의 직업들, 그림읽기 등등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이 이것이다. 비교적 내용이 충실한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지만 이런 책들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청소년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많이 출간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세 번째는 영상대중문화의 부속물로 출간되는 청소년 도서들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미 인기를 얻은 판타지, 영화 대본, 대중 스타들의 사생활, 만화 등에 관련된 책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책들은 사실 독서의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만약 이런 것들이 청소년 독서라면 청소년 독서는 권장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실정에서 청소년 독서에 가장 걸맞는 책들은 외국의 유명 청소년 문예물들이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문학이란 장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아쉬움 속에서 최근 좋은 청소년문학이 자주 번역 출간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좋은 책들이 일반독자에게 가까이 가기 어렵듯이, 좋은 청소년 문학이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독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책을 즐길 수 있는 취향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런데 그 취향은 거꾸로 좋은 책의 독서를 통해서만 길러진다. 이것이 독서교육의 딜레마이다. ■